



안다아시아벤처스 월간뉴스(23.02)



1. 한국벤처투자주관, 모태펀드 전북·강원 지역혁신 분야 서류심사 통과

안다아시아벤처스는 2023년 2월 17일부로 중소벤처기업부산하, 한국벤처투자에서주관하는 **전북·강원지역혁신 분야 모태펀드 출자사업 서류심사**에 통과하였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류심사에서 전북·강원지역혁신 분야에 지원한 **6개 운용사 중 4개 운용사가 선정되었으며, 이중 2개 운용사가 최종선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1차 심의(서류심사 및 현장실사)⇒2차 심의(운용사 PT)⇒최종선정** 예정입니다.

안다아시아벤처스는 전직원이 합심하여 고객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남권, 대구·제주·광주,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2022년 출자사업 서류심사 결과

□ 서류심사 통과 조합 12개, 결성예정액 2,346억원, 출자요청액 1,548억원

(단위 : 억원)

출자분야	결성예정액	출자요청액	회사명(가나다순)
동남권 지역혁신	834억원	560억원	경남벤처투자
			라이트하우스컴바인먼트
			심본투자파트너스
			오픈워터인베스트먼트
대구·제주·광주 지역혁신	919억원	596억원	넥스트지인베스트먼트
			대덕벤처파트너스/에스케이증권
			뮤어우즈벤처스
			제이씨에이치인베스트먼트/오라클벤처투자
전북·강원 지역혁신	593억원	392억원	소풍벤처스
			안다아시아벤처스
			월투시벤처투자
			한국가치투자

신규 투자기업 검토

안다아시아벤처스

[동명기업]

■ 동명기업의 사업모델



- 당사가 신규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동명기업은 폐배터리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사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으로, 폐배터리 철거에서부터 수집 및 운반, 재사용, 재활용 전 영역을 커버하고 있음
- 사업 초기 폐배터리의 수거/운반 유통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재사용(Reuse)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음
- 향후 성장 동력으로 재활용(Recycle)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재활용 사업을 통한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됨

* 재사용(Reuse): 폐배터리 일부 개조하거나 기존 형태 그대로 재사용하는 방식
 재활용(Recycle): 폐배터리 내 주요 금속(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등)을 추출하여 신규배터리 제조에 재활용하는 방식

■ 투자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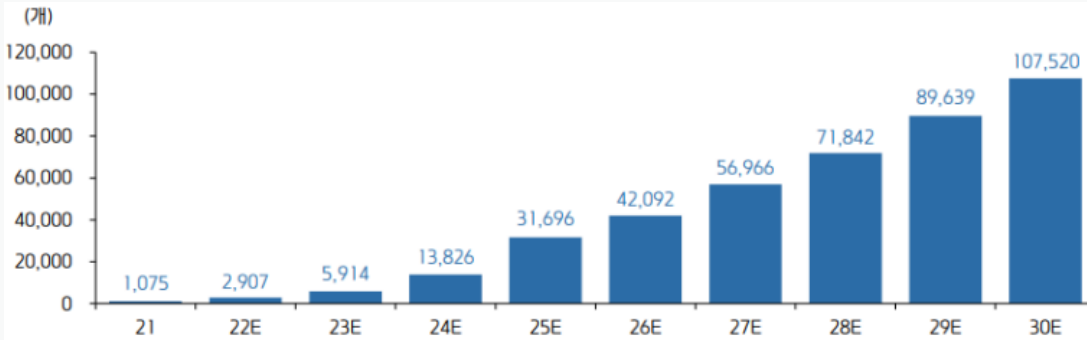
- 1)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초기 단계로 2040년까지 연평균 34% 급격한 성장 전망
- 2) 폐배터리 수집-운반-재사용-재활용 토탈 밸류체인 구축하여 폐배터리 수급 및 활용 경쟁력 확보
- 3) 24년도 새만금지역 공장신설 예정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통한 중장기 성장 모멘텀 기대

신규 투자기업 검토

안다아시아벤처스

■ “전기차 및 ESS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분석

<한국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 전망>



<글로벌 폐배터리 산업 시장 전망>

시장	기준	2025	2030	2035	2040
재사용	배터리용량(GWh)	16	187	776	1,849
	배터리용량(GWh)	26	158	621	1,606
재활용	무게(kton)	50	316	1,241	3,143
	금액(Mil USD)	794	5,558	22,579	57,395
폐차 대수	대수(만 대)	54	414	1,911	4,636

* 전기차 폐차: BEV+PHEV, 출처: SNE 리서치

- 전세계 폐차되는 전기차 수는 2025년 54만 대 → 2030년 414만 대 → 2035년 1,911만 대 → 2040년 4,636만 대로 급증이 예상되고,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 후 배터리도 2025년 42GWh에서 2040년 3,455GWh로 80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은 2040년 재사용 1,849GWh, 재활용 1,606GWh 규모로 예상됨.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10년 안팎을 써도 용량이 70~80% 수준으로 남아 있어 ESS 등 다른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하며, 니켈, 코발트 등 값비싼 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도 가능
- 재활용 시장은 금속 기준 2030년 31만 6천톤(약 6조 원)에서 2040년 314만 3천톤(약 6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향후 전망

	(단위: 백만원)	2021년	2022년(E)	2023년(F)
주요 재무현황	매출액	18,169	18,296	26,225
	영업이익	1,839	-450	778
	당기순익	1,750	-691	102

- 22년 예상 매출 183억원 중 매출 구성은 폐배터리 재사용 70%, 납산 배터리 수집·유통 30%
- 당사는 24년 새만금지역 공장신설로 폐배터리 재활용 라인 가동을 통해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됨. 기존 업체보다 더 높은 유가금속 회수율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향후 경쟁사 수준의 이익률을 충분히 달성가능할 것으로 판단됨